

(4) 장신구류

장신구류로는 굽은옥·소옥(小玉)·대롱옥(환옥)·구슬옥 등이 있는데, 송광면 우산리 내우 40호 고인돌에서 출토된 토구형 그물추도 피장자의 장식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① 굽은옥

굽은옥은 고인돌보다 석관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인돌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송광면 우산리 내우 8호에서 2점, 6호에서 1점, 여천시 평여동 ‘다’군 2호에서 2점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천하석제이며 그 형태도 각기 다르다.

최은주의 분류에 따르면 반월형 B식(평여동), 반결형 B식(우산리)·C식(우산리), 그리고 부정형(평여동)으로 나누어진다. 우산리 6호만 제외하고 우산리와 평여동에서는 쌍으로 발견되었는데, 우산리 8호는 비파형동검, 소옥 6점 그리고 평여동은 소옥 204점과 대롱옥 29점이 공반되어 출토되었다. 그리고 함평 초포리 석관묘에서 각종 청동기와 함께 굽은옥 2점이 머리 부근에서 발견된 바 있다.

② 소 옥

소옥은 모두 천하석제로 거의 대부분 0.5cm 이내이며, 1cm 정도는 여천시 평여동 ‘가’군 2호, ‘다’군 5호처럼 한 석실 내에서 2점씩 쌍으로 발견되었다. 소옥이 1점씩 발견된 예는 여수시 오림동과 여천시 봉계동이 있으나, 우산리 내우 8호에서 6점, 평여동 ‘다’군 2호에서 204점 등 여러 점이 일괄로 발견되었다. 소옥들은 다른 옥류들과 함께 발견되기도 하지만 송광면 우산리와 여천시 봉계동처럼 비파형동검과 공반된 예도 있다.

③ 구슬옥

구슬옥은 직경 3cm 정도로 단면이 타원형인 천하석제로 중앙에 구멍이 1개 있는 것이 여천시 평여동 ‘다’군 3호에서 2점 발견되었다. 중간을 자르면 반결형의 굽은옥 형태가 된다.

④ 대롱옥

대롱옥들은 모두 벽옥제들로 1cm 내외의 소형과 3cm 이상의 대형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소형들이다. 이러한 대롱옥들은 황주 천진동, 춘천 천전리, 제원 황석리, 진양 대평리 등 고인돌에서 종종 출토되는 유물인데 호남지역에서는 화순 절산리 1점, 순천 송광면 우산리 1점과 오봉리 1점, 여천시 봉계동 15점과 적량동 5점 그리고 평여동 138점, 여수시 오림동 2점 등 전남 남해안과 보성강 유역에서만 보이고 있다. 특히 남해안 여수반도에서 무더기로 출토되고 있다. 공반관계를 보면 송광면 우산리에서는 유정유공식 간돌검 1점, 봉계동에서는 비파형동검·비파형동모, 평여동에서 굽은옥·구슬옥 그리고 오림동에서는 비파형동검이 있다.

이와 같이 장신구인 옥은 석관묘나 고인돌에서 청동기들과 함께 출토되고 있는데, 고인돌에서는 비파형동검과 공반된 예가 많고, 평여동처럼 ‘다’군 3호에서 108점 그리고 ‘다’군 2호에서 235점의 옥들만이 석실 바닥에 깔린 상태로 출토된 예도 있다.